



동방경제포럼의뉴스

동방경제포럼범위내에 9월 6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9월 7일에 신조아베 일본 총리, 바틀가몽골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리아노보스찌)

유리우샤코프러시아대통령보좌관은 신조

아베 일본 총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포럼에 계속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리아노보스찌)

2017-동방경제포럼일본사절단은 사업

계, 민간기구 및 정부 대표들을 포함한 약 300명의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다. 포럼에는 적어도 69개의 일본 회사와 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타스)

2017-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

인 국가간 관계 강화를 위해서 장래 협력할 분야를 토론할 예정이다. 관련 주제들은 '러시아 - 아세안: 협력의 새로운 지평선' 본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 (타스)

동방경제포럼에서 연해주는 이전 포럼에서 체결된 계약들의 진행 결과를 가상의 투자자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나호드카' 어항 현대화 프로젝트와 '연해주 서클' 관광-휴양 클러스터 현대화 및 재건축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포럼 참가자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타스)

‘모린시스-아가트’ 회사는 이번 포럼에서 유일한 수상 무인보트와 최신 화물 운송용 잠수함을 소개할 것이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자율수저장치에 설치되는 수중음파탐지기 실험용 모듈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다. (리아노보스찌)

동방경제포럼 자원봉사자들은 루스키 섬 극동 연방대학 인증센터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OTV-프라임)

극동 뉴스

러시아 정부는 극동 투자자를 위한 신규 혜택을 준비 중에 있다. 경제발전부는 세제법 수정, 항공 운송 촉진 조치,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적용 규칙을 강변항구까지 확대안 등 수정안들이 곧 실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타스)

대사할린 외국투자액은 21억 5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외국투자는 원유개발 관련 대형 국제 프로젝트인 ‘사할린-1’, ‘사할린-2’에 이루어졌다. (아무르미디어)

2017년 8개월만에 VTB은행은 사할린 주 기업들에 12억 루블의 대출을 제공했다. VTB은행의 사할린 주 총 대출액은 24억 루블에 달하며, 건설업체(70%), 운송업체(14%), 상거래업체(9%), 서비스업체(6%)가 주를 이룬다. (사할린미디어)

참조 자료: 2017-동방경제포럼 운영기관인 ‘로스콘그레스’재단은 러시아 최대 국제회의 및 전시회 조직 운영기관이다. ‘로스콘그레스’재단은 각종 국제회의, 전시회, 시민행사 조직 및 운영을 통해서 러시아의 이미지 강화 및 경제 잠재력 개발 도모를 위해 2007년 설립되었다. 재단은 이들 행사의 내용을 구성하고, 업체 및 기관에 컨설팅, 정보제공,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국제 경제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이슈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재단은 몬테비데오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양한 연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행사에는 세계 유력 기업가, 전문가, 매스미디어 관계자들, 정부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프로모션하는 데 최고의 여건을 만들어 주며, 이외에도 기업의 사회기여활동 및 자선 프로젝트 조성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